



“노인들 나라” 폭발한 청년들 파리 불태웠다

프랑스 시위 격화, 곳곳 방화·약탈

143년 된 시청 시계탑이 불타고 유명 백화점과 명품·스마트폰 매장이 약탈당했다. 치솟는 생활비와 열악한 교육·공공 환경에 분노한 프랑스 청년들의 시위가 방화와 약탈로 번지며 생긴 일이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속출했다.

이날 파리 등 프랑스 1750개 지역에서선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추산 80만 명(경찰 추산 5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초반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차츰 과열됐다. 파리에선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한 일부 시위대가 레퐁블록 광장 등에서 경찰을 향해 보도블록 등을 던지거나 차량에 불을 질렀다. 방돔 광장 등은 시위대와 최루가스·물대포를 동원한 경찰과의 전쟁터가 됐다. 일부 시위대는 라파예트 백화점과 명품 매장 등에서 물품을 훔쳤다.

오트비엔주 리모주에선 방화로 시계탑 등 1883년에 지어진 시청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타 무너졌다. 리옹에서도 1852년에 세워진 관광안내소가 방화로 인해 사라졌다. 프랑스 내무부는 18일 오전까지 1800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5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시위대 1명도 숨졌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중순 공립 고등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학생 시위로 시작했다. 하지만 진압 과정에서 학생들이 한쪽 눈이나 손을 잃자, 다양한 계층이 과도한 진압을 비판하며 시위에 참여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2018년 ‘노란 조끼’ 운동을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확산하며 시위 규모가 폭발했다.

이승호 기자

▶ 2면 ‘프랑스 시위’로 계속

143년 된 프랑스 중부도시 시청도 불타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중부 오트비엔주 리모주에서 시위대 방화로 1883년 지어진 시청 건물이 불타 무너지는 모습.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수 주간 이어진 청년들의 시위가 치솟는 생활비와 연료 가격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이날 프랑스 1750개 지역에서 당국 추산 5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재명 X’ 논란 키운 분노 101회

‘이 대통령 X 글’ 감정·태도 분석
부정적 메시지, 전체의 4.5% 수준
대상은 주로 다주택자·검찰·언론
이스라엘 등과 외교갈등 비화도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올린 1000건의 게시물 중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anger)’가 표현된 횟수가 101회로 집계됐다. 즐거움(joy), 아쉬움(sadness), 걱정(anxiety)은 각각 400회, 93회, 22회 표출됐다. 특정 대상을 언급했지만 감정이 담기지 않은 ‘중립적(neutral)’ 표현이 3279회였다. 분노를 드러낸 대상의 수는

감정	중립(neutral)	3279회
	즐거움(joy)	400
	분노(anger)	101
	아쉬움(sadness)	93
	걱정(anxiety)	22

※10월 12일 오후 6시 기준 이재명 대통령 X 글 987건(답글·리포스트 제외)에서 정치적 사건 및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AI 모델을 통해 NER(Named Entity Recognition) 기법으로 추출한 대상

자료: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전체의 2.6%였지만, 그때마다 국내외적 논란이 초래되곤 했다.

지난해 6월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6시쯤 X 메시지 1000건(단순 재게시를 제외한 원글·인용·답글)을

기록했다. 중앙일보와 경북대 사회과학 기초자료연구소(소장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글들에서 정치적 사건 및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인물 및 기관을 NER(Named Entity Recognition) 기법으로 추출한 뒤, 추출된 3896개 대상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오픈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각각 전수 분석했다.

감정이 아닌 ‘태도’로 나눠봤을 때 이 대통령이 칭찬·격려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2128회(54.6%)였다. 중립적으로 평가한 건 1591회(40.8%), 부정 평가(비판적이거나 불리하게 평가)는 177회(4.5%)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당에 대해

선 긍정 17.9%, 부정 35.7%, 언론에 대해선 긍정 5.9%, 부정 47.1%로 조사됐다.

부정적인 평가와 분노 감정을 동시에 드러낸 대상의 수(83회, 전체의 2.1%)는 더 적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치적·외교적 후폭풍이 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 증거로 내더니”라고 썼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뒤였다.

하준호·오소영 기자

▶ 5면 ‘대통령 X’로 계속, 관계기사 4면

극초음속 이어… 정부, 내달 고체연료 발사체도 쏜다

정부가 이달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첫 시험발사(사진)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에 대한 해상 시험을 재개할 예정이다. 북한 역시 고체연료 엔진 개량과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 간 첨단 전력 확보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 관계기사 6면



The JoongAng Plus

머니랩 ▶ 16면

잠든 돈 2경원, AI가 깨운다
‘이더리움 모멘트’ 이미 시작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RICHARD MILLE

RM 55-01

